

성명서

65년 역사와 전통의 인하공업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건전성 악화의 위기 속에서도,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현 총장이 의원 면직되고, 총장직무대행 발령에 우리 구성원 모두는 매우 놀라고 있으며, 최근 재단의 감사가 갑작스러운 총장 면직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대학 총장으로 5명이(인하대학교 교수 출신 4명) 임명되었다. 그중 4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였다. 이는 총장선출제도의 문제로 인사 검증에 대한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총장 사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공개하라.
- 교내 구성원과 교수협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하라.
- 우리 대학의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을 총장으로 임명하라.

향후 우리는 학교 구성원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의 권리 수호를 위한 개혁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23. 04. 24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인하공업전문대학지부,
인하공업전문대학 총동창회